

# 전통연희에 대한 세 가지 시선

: 故 사진실 교수의 전통연희 시리즈 1-9

최원오\*

## 〈국문초록〉

고 사진실 교수는 한국 궁중연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통연희 제작현장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학자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만 50이 되던 2015년 8월에 유명을 달리하였다. 그런데 짧은 삶과는 달리, 사진실 교수는 생전에 전통연희를 포함한 한국연극에 대한 저작물과 공연 제작에 관한 아이디어를 다수 제출하였다. 필자는 부군의 협조 하에, 그 저작물과 각종 아이디어들을 모아 2017년에 ‘전통연희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9권을 발간하였다. 이 시리즈에는 고 사진실 교수가 한국의 전통연희(더 나아가서는 한국연극)에 주었던 세 가지 시선, 즉 ‘한국연극과 연극문화에 대한 사적(史的) 저술, 전통연희의 현대적 재현과 창조(즉 ‘전통연희의 창조적 재현’), 전통연희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매뉴얼 제작’에 대한 시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전통연희 연구자, 전통연희 제작 및 기획자, 전통연희 교육자들에게 ‘전통연희 시리즈 1-9’는 유용한 설계도 내지는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 1. 머리말

연구자가 서평을 요청 받는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스런 일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 학문적 업적에 대한 서평은 영광과 고통의 감정을 미묘하게 양분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다. 우선은 전문 연구서를 평할 기회를 준 한국극예술학회에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감정을 표하고 싶다. 그러나 필자는 한국의 전통연희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아니다. 한국 고전문학, 그 중에서도 구비문학을 전반적으로 연구하면서 전통연희에 대한 잡문(雜文)을 쓴 적은 더러 있지

---

\* 광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만, 전문적 연구 성과를 내놓은 바는 없다. 따라서 ‘전통연희 시리즈 1-9’에 대한 서평을 작성하게 된 게, 필자에게는 무척 고통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필자는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해야 할 위치에 있으니, 그걸 애써 탓할 수는 없다. 고 사진실 교수의 업적을 갈무리하기 위해 ‘전통연희 시리즈 1-9’를 필자가 직접 기획, 구성, 출판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변(辯)을 간략하게나마 더 언급하는 게 마땅할 듯하다. 사진실 교수는 2015년 8월 8일(양력), 만 50세의 나이에 작고하였다. 학문으로 보자면 정점을 찍을 나이였기에 더욱 아쉬운 인생 마침표의 숫자였다. 하여 필자는 장례식장에서 사진실 교수의 학문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써 부군을 위로하였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사 교수의 부군과 아들, 그리고 필자가 만나서 사진실 교수의 학술적 성과를 모아서 전집을 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sup>1)</sup>까지, 약 18개월 동안의 ‘쓸쓸하고도 먹먹한 작업’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평소 사진실 교수와의 학문적 교류 및 인간적 친분이, 이런 식의 슬픈 작업으로 이어질 줄 꿈에도 바라던 바가 아니었기에, 더 쓸쓸하고 먹먹했던 작업. 그러나 ‘전통연희 시리즈’ 9권을 마침내 발간하게 되었을 때, 필자의 이런 고통스런 감정은 사진실 교수의 ‘찬란하고도 여운을 남기는 학문적 결실’에 압도되어 사라졌다.

따라서 냉정한 비평보다는, 고 사진실 교수의 ‘전통연희 시리즈 1-9’가 내재하고 있는 ‘학문적 찬란함과 여운’을 이야기하는 게 적실할 듯하다. 필자에게는 그것이 고 사진실 교수의 학문적 결실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가 ‘전통연희 시리즈’를 기획할 때에 기준으로 삼았던 점은 무엇인가, 그에 따른 각권의 구성과 특징

1) 책에 표기된 발간일자는 2017년 3월 17일이나, 실제 발간된 일자는 2017년 6월 23일이다. 3월 17일로 발간일자를 앞당겨 표기한 것은 고 사진실 교수의 생일을 기억하고 싶은, 부군의 뜻에 따른 것이다.

은 무엇인가부터 설명해 보기로 한다. 이어서 고 사진실 교수의 학문에서 주목할 점(즉 ‘학문적 찬란함’)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두는 과제(즉 ‘학문적 여운’)는 무엇인지에 대해 덧붙여 보기로 한다. 그런데 이 중 ‘주목할 점’은, 결국 고 사진실 교수가 전통연희를 바라보았던 시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그것을 ‘전통연희에 대한 세 가지 시선’이라는 표현으로 정리한다.

## 2. 전통연희 시리즈의 기획 방향과 각권의 특징<sup>2)</sup>

고 사진실 교수는 생전에 『한국연극사 연구』와 『공연문화의 전통 樂·戲·劇』 등 2권의 책을 출간하였다. 필자는 전통연희 시리즈를 기획하기 위해, 이 두 권의 서문에서 밝힌 다음 대목들을 특히 주목하였다. 즉, 『한국연극사 연구』에서는 “한국연극사라는 이름을 빌어 책을 낸다는 것은 여전히 송구스럽다. 하지만 ‘연구’를 떼어낸 『한국연극사』를 저술하겠다는 약속으로, 이름의 무게를 감당해내고자 한다.”이고, 『공연문화의 전통 樂·戲·劇』에서는 “악·희·극의 갈래는 연극사 연구의 바람직한 전망을 제시할 뿐 아니라 문학사 및 연예술사연구에도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중략)… 앞으로의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작업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다. 첫째, 악·희·극 갈래의 작품을 발굴하여 그 역사와 미학을 밝히는 연구를 지속할 것이다. 둘째, 회화 및 건축분야에 대한 관심을 넓혀 극장사 연구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셋째, 문화사 연구의 차원에서 궁정문화·민속문화·시정문화의 교섭양상을 밝히는 한편,

2) 전통연희 시리즈의 구성과 특징에 대해서는 필자가 『문헌과 해석』 2017년 가을호에 수록된 「故 사진실 교수의 저술과 학문 - 전통연희시리즈 발간과 관련하여 -」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그 글의 몇 군데만 수정하여 여기에 다시 제시한다.

전통공연 문화와 현대공연문화의 접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연극사 및 극장사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연극문화를 비교하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이다.

이들 대목에서 필자는 고 사진실 교수가 학문적으로 성취하고자 하였던 목표가 ‘한국연극사, 한국연극 관련 문화사(즉 배우[광대], 관객, 공연공간[극장], 궁중연희 등에 대한 문화사적 조명) 등의 저술에 있고, 저술의 근간이 되는 이론을 ‘악·희·극의 갈래의 전승과 변화’에서 찾고자 한 점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제3권부터 제9권까지는 이런 점들을 특별히 염두에 두면서 각권의 제목을 정하고 목차를 구성하였다. 아래에 ‘전통연희 시리즈 1-9’의 구성과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제1권 『한국연극사 연구』 : 1997년에 태학사에서 발간하였던 책이다. 총 6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시대의 화극(話劇)을 다룬 석사논문과 조선시대 서울 지역의 연극을 다룬 박사논문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 우리의 연극을 통시적으로 조망하고자 했다. 여기서 ‘화극은 소학지희(笑謔之戲)라고도 하는 것으로, 2005년 12월에 개봉된 <왕의 남자>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고 사진실 교수에게 전통연희를 문화콘텐츠화 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이 책은 한국연극사가 어떻게 서술되어야 하는가라는 학문적 포부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고 사진실 교수에게 한국연극사는 전통과 현대의 연극을 모두 포괄하여 기술되어야 할 것이었다.

제2권 『공연문화의 전통 樂·戲·劇』 : 2002년에 태학사에서 발간하였던 책이다. 총 14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樂·戲·劇의 전통과 연극사의 전망(서론), ‘樂·戲·劇의 공연공간과 극장문화’(1부), ‘樂·戲·劇의 전승과 공연미학’(2부), ‘樂·戲·劇의 전통과 근대 연극문화’(3부) 등의 목차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악(樂: 노래)·희(戲: 놀이)·극(劇: 이야기)의 갈래 구분을 통해 한국의 연극사를 분석·체계화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한국

연극사 연구』가 한국연극사 기술을 위한 각오였다면, 이 책은 그 각오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설계도에 해당한다. 핵심은 악·희·극의 이론으로써 전통연희가 근대로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와 관련하여 공연의 전승과정, 공연의 공간과 미학, 공연문화의 계승 등에 특히 관심을 가졌다. 이후의 모든 연구논문과 아이디어는 이런 학문적 방향성에 기반하고 있다. 그 점에서 이 책은 고 사진실 교수의 대표 저서라고 할 수 있다.

제3권 『조선시대 공연공간과 공연미학』 : 총 10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공연공간과 연극의 전개’(1부), ‘공연의 제의성, 오락성, 정치성’(2부), ‘왕실극장 연경당의 공간운영과 무대미학’(3부), ‘공연공간의 변모와 근대 극장의 발전’(4부) 등의 목차 구성을 통해, 전통연희가 진행되는 공간과 그러한 공간을 통해 표출되는 미학의 성격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직접적으로는 『공연문화의 전통 樂·戲·劇』에서 의도하였던, 공연공간과 그 공간에서 창출되는 미학을 설명하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 중에서 “동아시아의 ‘신성한 산’ 선행에 나타난 욕망과 이념”이라는 논문은 동아시아 연극사 서술을 위한 설계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제4권 『전통연희의 전승과 성장』 : 총 8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궁정연희의 전통과 정재’(1부), ‘민간연희의 전승과 변화’(2부), 부록: 궁중정재(宮中呈才)의 공연공간과 연출원리 등의 목차 구성을 통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전통연희가 어떻게 전승되어 왔고 성장해 갔는가를 통시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다만 1부에 소개된 글은 이전에 작성되었던 논문을 일부 다듬은 것이기에, 원문을 궁금해 하는 독자들을 위해 부록에 첨부하였다. 그리고 “고려시대 정재의 음악과 공연미학”은 제3권에 수록해야 마땅했지만, 제4권의 1부가 정재를 소개한 것이어서 굳이 여기에 소개하였다. 고 사진실 교수는 정재의 공연미학을 예악론(禮樂論)으로써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의 궁정연희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그 점에서 이 논문은 동아시아 연극사의 미학, 특히 중세 동아시아 연극사의 미학을 설명하기 위한 밑그림에 해당한다.

제5권 『전통연희의 전승과 근대극』 : 총 13편의 논문을 ‘전통연희의 전승과 전망(1부), ‘근대극의 성립과 근대적 변화 양상(2부), 부록: 『왕조열전(王朝列傳)』의 文學史的 性格과 史的 位相, 『정수정전』 이본의 계통 및 변모 양상, 구비문학 연구동향, 時調에 있어서 ‘人生’의 표출양상 등의 목차로 구성하였다. 1부와 2부 구성을 통해서는 조선후기와 근대에 초점을 두고 전통연희가 지속되고 변용되는 측면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제3권과 제4권에 견줘 보자면, 전반적 짜임새는 다소 미진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제3권과 제4권에 포함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논문 및 연구사 논문들로 1부, 2부를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 사진실 교수가 제1권과 제2권에서 의도하였듯이, 전통연희와 근대극을 포괄하여 한국연극사가 기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 논문이 보여주는 문제의식은 생생하다. 한편, 전통연희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논문들만을 모아 부록에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 “時調에 있어서 ‘人生’의 표출양상”은 학술지에 미발표되었던 논문이다.

제6권 『봉래산 솟았으니 해와 달이 한가롭네 - 왕실의 연희축제』 :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왕실문화총서’ 중의 하나로 발간될 예정이었으나 생전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왕실에서 행해진 전통연희를 대중들에게 쉽게 소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양서 성격의 책이다. 고 사진실 교수는 자신의 학술논문을 다양한 관점에서 변용하여 예술현장에 관여하는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전통연희를 소개하고자 하였는데, 이 책은 그런 관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선의 왕실 연희 축제가 상하층 모두가 화합되는, 중세의 도시축제이자 거리 축제였다는 점을 유별나게 부각시키고 있음을 간취할 수 있다. 이것은 제9권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전통연희의 현대적 재현과 창조에 관한, 고 사진실 교수의 애착이 어디에 향해 있는가를 파악하게 한다. 그것은 광화

문 거리에 왕실 연희 축제를 현대적으로 재현하고 싶었던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제7권 『융합형 공연제작실습 교육을 위한 전통연희 매뉴얼』은 예술현장에서 전통연희와 관련된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수업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책이고, 제8권 『융합형 교육을 위한 공연문화유산 답사 매뉴얼』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 전통연희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특히 제7권은 고 사진실 교수가 한국 연극을 바라보는 관점, 즉 악·희·극 갈래의 통시적 조망 아래 전통연희를 소개한 점이 특징이고, 제8권은 전통연희에 관한 문화사적 관점을 적용하여 전통연희를 소개한 점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개론서가 그렇듯이, 막상 수업에서 사용하려다 보면 소기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이들 책은 전형적 개론서를 벗어나 있다. 전통연희 관련 교과목을 교수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의 입장에서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생 중심의 교육 및 실용성을 중시하는, 고 사진실 교수의 세계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학문적 작업의 결실이다.

제9권 『전통연희의 재창조를 꿈꾸다』 : 전통연희라는 보물창고를 열다(1부), 창조인문학의 새날을 열다(2부) 등의 목차 구성을 통해, 전통연희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1부는 고 사진실 교수가 국악방송에서 국악특강시리즈 중의 하나로 ‘전통연희’를 2007년 4월 8일부터 2007년 7월 15일까지 총 15회 방송하였던 원고로 구성하였다. 일부 다듬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방송 원고 그대로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다. 2부는 고 사진실 교수가 작명한 창조인문학을 화두로 삼았다. 생전에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는 사자성어와 더불어 자주 언급하였던 터라, 창조인문학이 곧 전통연희를 기반으로 한 법고창신학(法古創新學)임을 알 수 있다. 전통연희를 학문적 대상만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생전의 포부를 읽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제2권이 학문적 아이디어를 가장 잘 체계화한 책이라면, 제9권은 학문적 실용화의 포부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책이

다. 한편, 제9권에는 고 사진실 교수의 부군의 글 「전통연희 시리즈」 출간을 기리며」가 발문으로 수록되어 있다. 고 사진실 교수의 일상에서의 학문적 자세와 목표를 비교적 객관적 입장에서 담담하게 서술하여 놓았다.

이상에서 전통연희 시리즈 기획 상의 초점, 각권의 구성과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고 사진실 교수는 한국연극과 연극문화에 대한 사적(史的) 기술, 전통연희의 현대적 재현과 창조, 전통연희 교육과 매뉴얼 제작 등에 주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들 각각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 3. 전통연희에 대한 세 가지 시선과 남겨진 과제

#### 첫째, 한국연극과 연극문화에 대한 사적(史的) 기술

고 사진실 교수가 전통연희를 공부하면서 당차게 계획한 게 ‘한국연극사’ 저술이다. 여기서의 한국연극에는 전통연희와 근현대 연극을 모두 포괄한다. 그런데 그간에 전통연희와 근현대 연극을 한꺼번에 조망한 연극사 저서가 없었던 게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게 무슨 ‘당찬 포부’인가 의아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연희까지를 염두에 두고 한국연극사를 기술하였던 김재철, 이두현, 장한기 등의 연극사 저술을 되짚어보면, 그 포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김재철의 『조선연극사』(조선어문학회, 1933), 이두현의 『한국연극사』(민중서관, 1973), 장한기의 『한국연극사』(동국대학교출판부, 1990) 등은 하나같이 시대 순에 따라 한국연극사를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방식은 이두현 외, 『한국 공연 예술의 흐름 : 고대에서 현재까지』(현대미학사, 2013)에서도 이어져오고 있다.<sup>3)</sup>



그런데 한국문학사의 경우 조운제의 『한국문학사』나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등을 통해 시대 순 저술 방식이 어느 정도 극복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연극사는 여전히 고대의 시대 순 저술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된다. 따라서 고 사진실 교수는 바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연극사 저술이라는 당찬 포부를 드러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전통연희부터 근현대 연극에 이르기까지 일이관지(一以貫之) 할 수 있는 이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그에 대한 설명은 앞서 보았던 『공연문화의 전통 樂·戲·劇』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참고가 된다. 고 사진실 교수는 전통연희를 포함하여 한국연극을 구성하는 근본 원리로 써 악(樂: 노래)·희(戲: 놀이)·극(劇: 이야기)을 가정하였다. 그러나 고 사진실 교수는 전통연희와 근대 연극 사이의 끊어진 부분을 잇기 위한 시도뿐만 아니라, 전통연희의 각종 하위 갈래들이 악·희·극의 원리를 전승하고 때로는 변용시켜 왔는가를 만족할 만큼 충분히 설명해 내지는 못했다. 엄밀하게는 설명해낼 시간을 갖지 못했다. 한편, 고 사진실 교수는 한국연극사 저술 외에도 전통연희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부분들, 예컨대 광대나 관객, 공연 공간(극장) 등에도 주목하여 ‘광대 및 관객 문화사, 공연 공간의 문화사’ 등의 저술을 구상하였다. 이 중 공연 공간에 대한 문화사적 고찰은 제3권과 제4권에서, 광대 및 관객에 대한 문화사적 고찰은 제9권에서 간취되는데, 모두 완제품을 전제한 설계도로써 남아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한국연극과 연극문화에 대한 사적 기술은, 이들 분야에 관심 있는 누군가의 시선에 착목되어 완성되어야 할 과제인 셈이다.

3) 다음과 같은 시대순의 기술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제1장 한국연극사 - 고대에서 1945년까지 (이두현)

제2장 한국연극사 - 1946년에서 1979년까지 (여석기)

제3장 한국연극사 - 1980년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한상철)

제4장 한국연극계의 구도 개편의 징후들 : ‘중극장 시대의 도래’ - 2010년의 변화 (김기란).

### 둘째, 전통연희의 현대적 재현과 창조

고 사진실 교수는 국문학(조선시대 연극)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직장이 중앙대 예술대학 전통예술학부였기에 공연예술의 현장을 향유 접하였다. 그런데 국문학 박사학위자가 전통예술학부에 몸을 담다 보면 학문상의 정체성 혼란을 겪었을 법한데도, 고 사진실 교수는 공연예술의 이론과 현장을 접합시키는 실천적 탐험을 훌륭하게 수행해냈다. 그 실천적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꿈꾸는 산대’라는 공연기획사를 차렸을 정도였다. 다만 공연예술 현장의 경우, 뒤늦게 접한 분야라서 학문적 성취에 미치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영화 <왕의 남자>가 만들어지는 데 결정적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좀 더 시간이 주어졌더라면 학문에 못지않은 결실을 일궈냈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아이디어들(제9권에 수록되어 있음)이 문화기획 및 창작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점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한편, 고 사진실 교수는 이처럼 전통연희를 현대의 문화콘텐츠로 창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통연희가 현대에도 창조적으로 재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그것은 대략 다음의 세 가지였다. 왕실연희, 산대(山臺), 선유놀음(선유희(船遊戲))이 그것이다. 그런데 전통연희 시리즈의 어느 권에서도 이에 대해 명백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관련 논문을 읽어나가다 보면, 고 사진실 교수가 이 세 가지 전통연희에 엄청나게 애착을 가졌다는 걸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왕실연희는 제6권에 비교적 완성된 형태로, 산대와 선유놀음은 개별 논문으로 대략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들 전통연희를 현대적으로 재현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언젠가는 이들 세 가지가 서울시의 대표 문화 상품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지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구한다.

### 셋째, 전통연희 교육과 매뉴얼 제작

고 사진실 교수는 전통연희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문은 작성한 적이 없다. 그러나 제7권과 제8권이 말해 주듯이, 전통연희 교육에 대한 관심과 고민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연희의 개념, 핵심 내용, 교육대상에 따른 적합한 교육 방법이 모두 고려되어 있음이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교육 방법은 특별히 언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 사진실 교수는 매뉴얼의 제목에 소위 ‘융합형 교육’을 표방했다. 그런데 ‘융합형 교육’은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언급되었다가,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즉 2015개정 교육과정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의 융합, 그것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간상을 목표로 하는데, 고 사진실 교수는 그러한 인재상 교육을 이미 설계하고 있었던 것이다.<sup>4)</sup>

제2권에서 한국연극사 저술을 위해 제시한, 악(노래)·희(놀이)·극(이야기)의 연극 갈래를 학생들에게 “균형 있게 조망”시키고자 한 점도 주목된다. 그런데 고 사진실 교수에게 악·희·극은 한국연극의 핵심 갈래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전승과 변모, 전통과 계승이라는 역동성은 한국연극사 저술의 핵심을 차지한다. 그것이 제7권에 소소하게 녹아들어 있다. 고 사진실 교수는 한국연극사뿐만 아니라, 한국연극에 관한 문화사 저술에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제8권은 그런 문화사적 관점 아래 전통연희 유산과 그 전승 공간을 연계시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고 사진실 교수에게 전통연희 교육의 관점은, 전통연희에 대해 자신이 지향했던 학문 작업과 정확한 일치점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8권은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전통연희에 관한 각종 문화를 교육시키고자 한 책이고, 제7권은 전통공연 제작 실습생들을 대상으로 전통연희의 종목들을 한국연극사의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시키고자 한

4) 이에 대해서는 제9권에 수록된 ‘창조인문학 프로젝트’ 관련 글에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책이다. 그 점에서 두 권의 교육 매뉴얼을 통해 교육 급별 간의 연계와 위계를 고려한 전통연희 교육과정의 체계화를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연계성이나 위계성은 교과교육학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집단에서 사용하는 개념인데,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체계적인 교육 관점을 적용하고 있음이 놀랍다. 이를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에 두 권의 목차를 제시해 본다.

[표 1] 전통연희 시리즈 7권과 8권의 목차 (장만 제시함)

제목	『융합형 교육을 위한 공연문화유산 답사 매뉴얼』	『융합형 공연제작실습 교육을 위한 전통연희 매뉴얼』
교육 대상	학부생	전통공연 제작 실습생
교육 관점	문화사적 관점	연극사적 관점
목차	제 1장 공연공간의 전통 제 2장 정재의 공연공간과 서울의 궁궐 제 3장 소학지희의 공연공간과 서울의 궁궐 제 4장 <배따라기곡>의 공연공간과 평양의 누정 제 5장 선유놀음의 공연공간과 평양의 대동강 제 6장 <산대놀이>의 공연공간과 서울의 광화문 제 7장 <꼭두각시놀음>의 공연공간과 안성 청룡사 제 8장 <하회탈놀이>의 공연공간과 안동 하회마을	1. 전통연희의 개념과 범주 2. 전통연희의 공연공간 3. 전통연희 종목별 개요

책의 제목이나 목차 구성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듯이, 이상의 두 책은

학생 급별의 위계와 급간의 연계를 고려하여 전통연희를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매뉴얼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고 사진실 교수가 교수자로서 중앙대 예술대학 전통예술학부에서 담당한 역할이 특정되었기에, 이처럼 전통연희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 매뉴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근현대의 연극까지를 포괄한 교육 매뉴얼 작성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고 사진실 교수가 두 권의 매뉴얼에서 의도하였듯이, 교수자의 관점이 아닌, 학생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하고 공연 제작에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면 더욱 좋을 것이다.

초등, 중등 교육에서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통연희 교육 매뉴얼 작성도 시도해 볼직하다. 2015교육과정에서는 특히 연극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의 연극을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연극’이라는 명칭으로 일컫기도 하여 다소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면이 없지 않고, 그 이론 배경도 현대의 연극에 철저하게 빚지고 있어 썩 만족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 그 점에서 초등, 중등 교육 과정에서의 악(노래)·희(놀이)·극(이야기)의 갈래를 모두 고려한 연극교육, 문화사적 이해를 도모하는 연극교육이나 매뉴얼 제작은 꽤 혁신적 과제가 될 수 있다.

#### 4. 맺음말

현재 한국학 분야에서 전통연희, 그 중에서도 궁중연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자는 많지 않다. 거기에 더하여 공연 제작현장과 연계하여 전통연희를 전문적으로 다룬 학자는 더욱 드물다. 그런 점에서 고 사진실 교수는 특별한 학자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고 사진실 교수가 한국의 전통연희(더 나아가서는 한국연극)에 주었던 세 가지 시선, 즉 ‘한국연극과 연극문화에 대한 사적(史的) 저술, 전통연희의 현대적 재현과

창조(즉 ‘전통연희의 창조적 재현’), 전통연희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매뉴얼 제작에 대한 시선을 전통연희 연구자, 전통연희 제작 및 기획자, 전통연희 교육자가 후속 작업을 통해 더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 과정에서 ‘전통연희 시리즈 1-9’는 유용한 설계도 내지는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